

# 광주·전남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호남통계청 2010년 이후 생활물가 동향

광주 오징어 120%·전남 하수도료 320%  
생활물가지수 각 12.2%·13.8% 올라

최근 10년 새 체감물가를 반영한 전남 생활물가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지역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품목은 광주는 오징어(120%), 전남은 하수도료(320%)였다. 10일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이후 생활물가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대비 지난해 생활물가지수는 광주 12.2%·전남 13.8%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3.4%로, 전남은 대구(15.8%), 부산(14.3%), 서울(14.5%), 제주(14.2%)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다. 광주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으며,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대전(11.3%)이었다.

생활물가지수는 일반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과 기본 생필품을 중심으로 141개 품목을 선정해 작성한다. 호남통계청은 2010년 이후 상승·하락 폭이 큰 품목과 물가지수의 비중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동향을 정리했다. 지난 10년 동안 전남에서는 식품 부문 체감물가가 28.1% 오르며, 전국 평균 상승률(27.1%)을 웃돌았다. 전월세는 13.8% 올랐는데, 전국 평균(21.7%)에는 못 미쳤다.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전남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생활물가 조사 대상 품목 141개 가운데 10년 동안 광주는 114개, 전남은 전남은 118개 가격이 올랐다. '두 자릿수' 넘는 상승률을 나타낸 품목은 광주 98개·전남 100개였다. 10년 간 가장 값이 큰 폭으로 오른 품목은 광주는 오징어(119.6%), 전남은 하수도료(319.5%)였다. 광주는 오징어에 이어 껌(87.9%), 담배(83.1%), 당근(81.1%), 꿀(72.6%), 하수도료(65.6%), 소금(64.9%), 탄산음료(61.6%)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남은 하수도료에 이어 오징어(185.1%), 담배(83.0%), 부엌용

용구(66.9%), 껌(65.2%), 당근(64.0%) 등이 크게 올랐다. 반면 이른바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에 따른 혜택으로 학교급식비는 두 지역 모두 100%로 인하됐다. 고등학교 납입금은 광주가 74.4% 내렸고, 전남은 100% 쪼갰다. 광주에서는 무(-33.6%), 유치원 납입금(-30.3%), 조제약(-22.6%), 경유·자동차용LPG(각 -20.9%), 휘발유(-19.3%) 등 가격이 내렸다. 전남지역은 유치원 납입금(-50.7%), 조제약(-22.6%), 경유(-20.4%), 휘발유(-18.8%), 샴푸(-14.1%), 휴대전화료(-13.1%), 자동차용LPG(-12.9%) 등이 인하됐다. 생활물가 품목 가운데 비중이 큰 휴대전화료(-13.1%)와 전기료(-5.1%), 휘발유는 모두 10년 전보다 가격이 하락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2012년 6월께 세계경제 위기에 이어 하반기부터 발생한 중동 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물가 지수가 하락했다고 통계청 측은 설명했다. 하수도 요금 급등은 관련 시설에 민간자본 등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데다 요금 현실화에 따라 인상이 뒤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43.19 (-17.23)
↓ 코스닥	1052.07 (-7.93)
↓ 금리(국고채 3년)	1.432 (-0.004)
↑ 환율(USD)	1149.80 (+5.50)

## 아무튼 개인형IRP 든든한 연금준비

### 광주은행 경품행사

광주은행이 노후자금 마련과 절세 혜택을 노리는 개인형IRP(퇴직연금계좌)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품행사를 오는 10월29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이름은 '아무튼 개인형IRP! 든든한 연금준비'이다. 개인형IRP는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퇴직금 수령(예정)자 등이 자율적으로 가입해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연말정산 때 총 7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광주은행이 진행하는 첫 번째 행사 대상은 ▲개인형IRP 신규 가입·매월 자동이체 10만원 이상 설정한 고객 ▲타사 개인형IRP를 광주은행으로 100만원 이상 이전하거나 광주은행에 기존 가입된 개인형IRP 계좌에 100만원 이상 추가 납입한 고객이다.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 삼성 에어드레서 ▲2등 2명에게 삼성 큐커 ▲3등 10명에게 상품권 5만원 ▲4등 2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제공한다. 두 번째 행사 대상은 ▲행사 대상 펀드상품으로 변경해 매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설정한 고객 ▲이벤트 대상 펀드상품으로 100만원 이상 변경한 고객이다. 추첨을 통해 2명에게 삼성 조리기기 큐커를 주고, 자동이체 및 변경된 상품에 추가 입금한 금액에 따라 상품권 5000원, 1만원, 2만원을 제공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가득 쌓이면 9980원 10일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직원이 종이바구니에 가득 쌓은 키위를 선보이고 있다. 11일까지 넘치지 않게 쌓으면 9980원에 살 수 있다. <롯데쇼핑 제공>



10일 김춘진(왼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을 찾아 달걀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살피고 있다. <aT 제공>

## 광주 光융합 시험·인증 사업 참여기업 모집

### 광산업진흥회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오는 31일까지 '제4차 광융합산업 시험평가 및 인증획득지원 사업'에 참가할 지역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상품 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판매·수출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관련된 제품의 국내외 시험 및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광주시 지방보조금 4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광주 소재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면서 광융합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사

업의 적합성과 사업수행 역량 및 지역산업 기여 등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지원금은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기업 당 최대 2000만원이다. 앞서 진흥회는 지난해 30개사에 337건의 시험 인증비를 지원했으며, 지원 기업의 매출액이 31% 증가하고 근무인력이 17.5%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광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광융합산업체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추석 앞두고 농축산물값 상승

배 전년비 90.9%·달걀 91.5%

추석 명절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크게 올랐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본부에 이날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소매판매된 농산물 가격을 조사한 소식지 '얼마요' 2115호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날 간마늘 1kg 가격은 1만원으로, 1년 전보다 42.9%(3000원) 상승했다. 견고추(화건) 600g 가격은 1만25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36.4%(2500원) 올랐다. 배와 사과 수박, 복숭아는 모두 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했다. 신고 배 10개 값은 전년보다 90.9%(3만원)나 오른 6만3000원에 판매됐다. 수박 1통(10kg)은 2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13.6%(3000원) 올랐다. 사과(후지) 10개는 8.6%(3000원) 오른 3만8000원, 복숭아(백도) 10개는 23.1%(3000원) 상승한 1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달걀(특란) 한 판은 전년보다 91.5%(3660원) 오른 7660원으로, 여전히 급등세를 잡지 못했다. /백희준 기자 bhj@

## 비트코인 5200만원대 상승

10일 오후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다. 이날 오후 3시14분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5252만2000원이다. 24시간 전보다 4.30% 상승한 가격이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8시10분 5320만4000원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소폭 하락했다.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5257만원이다. 이더리움 가격은 빗썸에서 358만9000원을 나타냈다. 24시간 전보다 5.96% 올랐다.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은 359만1000원에 거래됐다. 도지코인은 빗썸에서 290.6원, 업비트에서 290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포도에서 만남시다  
전혜진 시집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전혜진 시인 첫 시집

# 포도에서 만남시다

추천사

“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양대 국문과 교수

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사산백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남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사산백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